

‘등록금 0원’ 효과?... 일반 지방국립대 수시 지원 12.6% ↑

지방국립대 증가율, 지거국의 2배
금오공대 지원자 58.2% 증가
대학·지역별 양극화는 ‘뚜렷’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지방 거점국립대보다 일반 지방국립대의 지원자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이 지거국보다 일반 지방국립대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지거국 9개교와 지방국립대 12개교, 지방사립대 65개교의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거국 지원자는 전년보다 1만4477명(5.2%) 증가했다. 지방국립대는 1만7308명(12.6%), 지방사립대는 3004명(0.5%) 늘었다. 지방국립대 분석에서는 교대 등 특수대학은 제외됐다.

평균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했다. 지거국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8.65대 1에서 올해 8.96대 1로 올랐다. 지방국립대는 같은 기간 6.44대 1에서 7.16대 1로, 지방사립대는 5.75대 1에서 5.80대 1로 상승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7일 경기 수원시 영복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수능 실시요강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특히 일반 지방국립대의 지원자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금오공대는 지원자가 전년보다 3139명(58.2%) 늘었고, 경국대도 2406명(42.1%) 증가했다. 군산대는 2779명(36.9%), 순천대는 2100명(29.9%), 목포대는 2256명(29.3%) 각각 증가했다.

반면 대학별 편차도 컸다. 한국교통대 지원자는 전년보다 545명(4.4%) 줄었고 한국해양대는 982명(9.2%), 목포해양대는 881명(16.2%) 감소했다. 국립대 가운데 지원자가 58.2% 증가한 대학이 있는 반면 16.2% 감소한 대학도 나타난 셈이다.

지거국에서도 대학별 차이가 나타났다. 경북대는 지원자가 전년보다 0.9%, 충북대는 17.1% 감소했다. 올해 지거국 경쟁률은 경북대가 13.19대 1로 가장 높았고 부산대 11.55대 1, 충남대 9.58대 1, 전북대 8.74대 1, 충북대 8.54대 1, 경상국립대 8.09대 1, 강원대 7.34대 1, 전남대 6.64대 1, 제주대 5.12대 1 순이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정 대학인 부산대·충남대·전남대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만414명(11.6%) 증가했다. 나머지 지거국 6개 대학은 4063명(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올해 지거국 지원자 증가에는 지역·사제 신설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거국 전체 지원자는 전년보다 5.2% 증가했지만, 2027학년도 신설된 지거국 지역·사제 지원자 2311명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4.3%에 그쳤다. 이에 따라 등록금 0원 정책이 지거국으로의 급격한 지원자 쏠림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사립대도 전체 지원자는 전년보다 0.5% 늘어 국립대 등록금 정책에 따른 급

격한 지원자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컸다. 호남권 지방사립대 지원자는 2723명(3.2%), 부울경은 1756명(1.2%), 충청권은 2262명(0.9%), 대구·경북권은 942명(0.8%) 증가했다. 반면 강원권 3개 사립대는 4679명(17.1%)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지방 학생들이 지역 소재 대학에 머무르는 최근 경향이 올해 입시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동시에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의 영향은 지거국보다 일반 지방국립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대학과 지역에 따라 지원 양상이 크게 엇갈렸다고 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학년도 수시 지원 상황을 볼 때 등록금 정책이 입시 지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향후 지방 거점국립대 간, 국립대 간, 지방사립대 지역 간 지원자 격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초등학교 스쿨존, ‘사고 제로’ 도전

서울시교육청, 안전 캠페인 전개
9월 셋째주 교통안전 주간 지정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9월 셋째 주를 교통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서울 전체 초등학교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통학 안전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초등학교 11곳을 선정해 현장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에는 교육지원청, 자치구, 경찰서 등이 참여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오는 16일 서초구 서울방배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학교 인근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학부모와 ▲서



어린이안전우산 이미지. /서울시교육청

초구청 ▲방배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과 통학환경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대상 학교에는 어린이 안전우산과 옐로

카드 키링 등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옐로카드 키링은 서울 초등학교 대상 교통안전 슬로건 공모전 대상작 “빨간불엔 얼음, 초록불엔 살금”을 담아 제작했다. 이번 교통안전 주간에 서울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현장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안전한 등하굣길은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경찰,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추석 연휴, 서울 막차 늘리고 응급실 운영

서울시, 추석대책 23~28일 가동
병·의원·약국 하루 1509곳 영업

추석 연휴 갑자기 아프더라도 서울 시내 74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늦은 밤 서울에 도착하는 귀경객을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는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사랑 상품권 2650억원어치도 발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2026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3곳 등 총 74곳이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의료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과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곳이다.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우리아이안심병원’ 8곳과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운영한다.

연휴 나흘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누적 약 6036곳으로 하루 평균 1509곳이다. 병·의원 613곳, 약국 896곳 수준이다.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서울시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 각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120 다산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늦게 서울에 도착하는 귀경객을 위해 대중교통 막차도 연장한다. 추석 다음 날인 26일과 27일 이틀간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행한다.

같은 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이현진 기자

수원시의회, 4조1677억 추정 확정

도시개발·철도망도 속도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난 11일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비롯해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수정가결됐으며,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가결됐다.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1677억원 규모로 수정가결됐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이와 함께 ▲203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매탄1구역(금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2036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영화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등에 대한 의견제

시도 이뤄졌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윤일영·서지연·최성호·박혜연·배준서 의원이 나서 ▲수원형 교육협력 모델 구축 ▲영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 ▲민관협력 DMO 구축 ▲축제와 지역상권 연계 ▲사회적 참사를 아우르는 통합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미경 의장은 “안전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제시됐지만 충분한 토론과 의회 절차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시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메트로 한줄뉴스



▲바레인, “오만이 제안한 호르무즈 회의 참석하지 않을 것”
▲이란, “오만과 합의가 호르무즈 즉시 재개방은 아냐”...美 조건 이행에 달려 /사진 뉴스시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상선 피격...1명 사망·3명 부상
▲트럼프 “이란, 사우디 동서 송유관 공격 배후가 능성”

▲美 민주당, 오는 11월 중간선거 하원 다수당 노린다...“트럼프 부패 조사할 것”
▲243명 태운 인도네시아 여객선 연락 두절...103명 구조·1명 사망